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11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안덕면 생활개선회, 밑반찬 전달-10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일보
○	동·서부농업기술센터에 농산업 창업 보육센터 만들자-15면	-	제민일보

(제주일보: 2024년 4월 11일)

○ 안덕면 생활개선회, 밑반찬 전달-10면



안덕면 생활개선회, 밑반찬 전달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서귀포시 안덕면회(회장 김난숙)는 최근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장아찌를 만든 후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4.11.
제주일보 10

(제민일보: 2024년 4월 11일)

○ 동·서부농업기술센터에 농산업 창업보육센터 만들자-15면

동·서부농업기술센터에 농산업 창업보육센터 만들자

제민포럼



김 기 옥
비상임 논설위원

■ 혁신적 타개책 필요하다

제주 농산업 분야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계속하고 있듯이, 우리가 혁신할 때 앞으로 농산업을 뛰어든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제주 농산업을의 꿈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4.11.
제민일보 15

지난 수십년 동안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요구해왔다. 감귤 같은 경우 고당도 감귤 생산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으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감귤 이외 다양한 채소 작물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안정된 판로나 소득이 불확실하다. 즉, 농산물은 생산하는 것만으로 부족한 시대가 됐다.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장→가공→판매 분야까지 경제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 농업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재배 및 생산 기술에 대해 기후변화 같은 재앙을 제외하고 큰 문제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판로다. 제주의 월동무 사례를 보면 재배기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세계최고이나 판로는 한계가 많다. 감귤의 경우 만감류 가격 호조에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노지감귤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농민의 기대치와 거리가 있다고 한다.

월동무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은 농협이든, 상인이든 최소한의 가격만 받길 희망하나 현실은 어렵다. 이에 공산품과 농산품들이 판로를 온라인 판매로 옮기고 있으나, 대다수 농가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몰,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주도하는 주체는 농민이 아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농민이 항상 울이 된다는 점에서 농민이 작게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다는 점은 매우 슬픈 현실이다.

이에 청년·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의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농촌에 가면 청년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금 사업 등 관련 홍보물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농촌에 젊은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6개 도시 등이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순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청년 육성 사업에 현장은 현장대로, 귀농은 귀농대로 정책을 이원화 하는 홍보 전략과 육성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주는 농산업 관련 창업 지원, 기술지원, 경영자 교육 관련 홍보를 대학 또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나 수요자인 청년과 다소 거리가 있다.

특히, 육지부로부터 달마다 1000명이 이주하고 있지만 단순히 베이커리,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도 몇달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의 최전

선인 제주에서 농산업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제주 농산업 창업보육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주의 농산업은 전국 최고의 환경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장점을 혁신으로 변화시키고 진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산업 창업보육센터를 동·서부농업기술센터에 설립해야 한다. 제주도내 및 전국 단위 청년, 은퇴자, 여성 등을 모집해 농산업 분야의 창업을 도모, 글로벌 제주를 만들어 보자. 농업기술센터에 장비, 기술, 인력이 모두 갖춰져 있는 만큼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기 힘든 일부 마케팅, 시장 개척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다면 제주의 이상적인 농산업 모델이 될 수 있다.

제주 농산업 분야의 다양한 어려움에도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계속하고 있듯이, 우리가 혁신할 때 앞으로 농산업을 뛰어든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며 제주 농산업을의 꿈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학박사>